

에 초청되었으며, 영화제에서 480번이나 상영되었고, 그중 27편이 국제영화제에서 44개의 상을 휩쓸었으며, 상을 받은 부문이 2005년에 비해 12개나 증가하였다.

이슈1) 2007년 문화시장 4대 전망

2007. 1. 2 중국문화보(中国文化报)

1. 회의전람 경제의 하이라이트 박람회

문화시장의 번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각종 문화박람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2007년 각종 문화산업의 박람회 횟수, 규모, 운영방식은 회의전람 경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2006년에 개최한 중국(선전)국제문화산업박람회, 산둥문화산업박람회, 중국중부문화산업박람회, 이우(义乌)문화상품교역박람회, 북경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등 몇 가지의 종합성 문화산업박람회로 볼 때, 현장 교역금액이 대단할 뿐 아니라 박람회 자체도 시장화운영방식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절대 다수의 박람회들이 매년 한 회씩 개최되며, 올해도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연출오락박람회(中国演出娱乐博览会)와 노래방, 나이트클럽, 술집 전문 디자인박람회 등이 2007년 처음 개최될 예정이고, 그중 중국연출오락박람회는 공연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관련된 디자인, 기자재, 악기, 시설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 행사는 《통이쇼우거(同一首歌)》 등 텔레비전 연출 프로그램 소개와 중·대형 예술공연단과 지방특색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제1회 노래방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며 공연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황금박스오피스”상 시상식을 갖을 예정이다.

현재 대략적인 수치에 따르면, 2007년에 개최될 중국전국의 각종 대형종합성 문화박람회는 적어도 6개 이며, 전문박람회는 10개가 넘을 것이고, 각종 소형 전람회, 교역회는 20개 이상일 것이라고 나타났다. 현재 왕성하게 개최되고 있는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교역회들은 2007년 회의전람 경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2. 공연무대는 지금 “연극 열풍”

2007년 중국연극은 백년 만에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북경 동방시엔펑극장(东方先锋剧场)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관한 연극 《사탄의 계획》을 공연하고,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북경 런이실험소극장(人艺实验小剧场)에서 《분노의 주먹》을 공연할 예정이며, 상해 란신대극장(兰心大戏院)에서 상해희극학원단과 왕옌송(王延松)이 출연하여 “새롭게 해석한” 《뇌우》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공연을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2007년 4월 개최하는 중국전국연극백년신작프로그램 평가전에서는 중국 각지의 연극들을 집중 상영할 예정이다. 베이징인민예술극장의 《내 일생》, 랴오닝인민예술극장의 《돌산의 남녀》, 닝시아(宁夏) 연극단의 《확실한 후원자》, 산시성인민예술극장의 《천당》, 절강연극단과 항저우시 예술창작센터가 공동으로 연출한 《아이더썬쑤이》, 쓰촨 인민예술극장의 《농민》 등의 작품이 올해 연이어 공연될 것이다.

3. 레저 관광 프로젝트 건설

총 토지면적이 600묘에 투자총액이 20억 위안의 달하는 쓰촨성 칭두 극지해양세계는 2007년 연말에 건설이 되어 개방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산시성 시안은 매년 2000만 위안을 문화산업전문자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그중 역사인문경관과 현대도시 분위기의 따당부예청(大唐不夜城)은 이미 계획 중에 있고, 광원탄생태관광지구(广运潭生态景区)는 서부에서 가장 큰 시셰이레저문화관광지구(嬉水休闲文化景区)를 세울 계획이다.

2007년 많은 지방에서 레저 관광산업을 경제의 성장점으로 여겨 현재 계획, 건설, 개발 중이다.

2008년 북경에서 29회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인해 2007년 레저 관광시장은 올림픽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각종 “건강, 운동, 여가”라는 슬로건의 여행상품이 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4. 영화관건설이 최고조에 달해

중국이 비공유자본을 문화산업정책을 진입시키고, 아울러 영화관건설에 관한 특혜정책을 고무하는 상황에서 중국내 자본시장은 현대화된 영화관건설 참여에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2007년 스크린 증가 수는 작년의 300개를 넘어 500개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부동산업자들은 중국영화관 건설에 주력을 다하였으며, 올해 새로 지은 영화관은 대다수가 “부동산”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완다그룹(万达集团)은 올해 건물 15개를 재건할 것이며, 쥘리엔그룹(今典集团)과 세기환치우영화체인망(世纪环球电影院线)이 약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세운 상해영화관은 지금 시공 중에 있으며 올해 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쥘리엔그룹 장바오취엔(张宝全)사장은 올해 디지털영화관을 건설하는데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동산항목은 현대적 영화관을 건설하기위해 준비 중이다. 예를 들어 토지면적이 약 150묘를 차지하고, 건축계획면적이 80만㎡인 항저우완상청(杭州万象城)은 대형 영화관 등을 세울 계획이다.